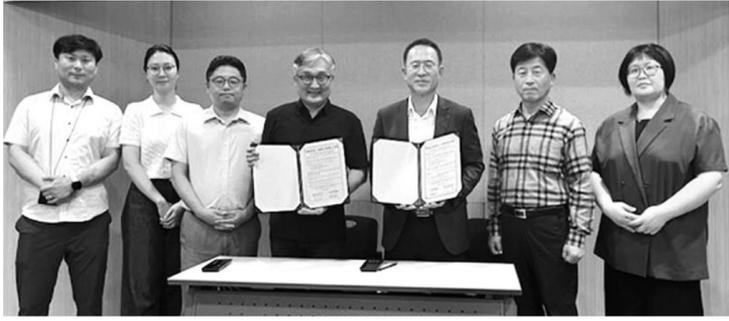


###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와 협약



(재)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황규철)은 최근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에서 전라제주 권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인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방과후 늘봄학교 및 교육기부문화 활성화 ▲에너지 및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역 환경교육 및 교육기부 활동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황 원장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한층 발전된 교육기부 프로그램 및 지원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27년까지 3년간 전남 교육청에서 전남 교육기부 인증기관으로 3회 연속 인증된 바가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 광주자연과학고, 일본서 글로벌 러닝 어드벤처 운영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해외 학술탐방 프로그램 ‘글로벌 러닝(Learning) 어드벤처’를 운영했다. <사진> 학생들의 해외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전공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탐방에는 4개 학과 12명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선발 과정부 팀을 꾸리고 학과 테마에 맞게 메인 탐방지를 선정하는 등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백인교 교장은 “학생들이 직업 전문성뿐만 아니라 세계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적 시야를 넓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자연과학고는 해외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시교육청 주관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호주)’, ‘해외 학술탐방 지원 프로그램(파리)’, ‘한·일교류(일본)’, ‘민주인권 평화통일(대만)’ 등 다양한 교내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박명렬 동신대 교수

#### 글로벌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선정



동신대학교 박명렬(사진) 교수(고에너지물리연구소 및 방사선학과)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4 글로벌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심화형(BRL) 물리학 분야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박 교수가 이끌고 있는 동신대 고에너지물리 연구소는 향후 2년 9개월간 총 13억7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비활성 중성미자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밝히는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우수연구센터(SRC)와 함께 가장 많은 연구비가 배정된 사업으로, 올해 동신대와 KAIST, 고려대, 한양대 등 4개 대학이 선정됐다.

박 교수는 일본 양성자 가속기 연구기구(J-PARC)에서 한미일 공동연구로 진행되는 JSNS2 실험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으며 동신대학교 고에너지물리연구소(LHEP)와 수행해 온 연구 활동 성과가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조선대, 미국 산호세 주립대서 ‘썸머 SW&AI 교육’



조선대학교 AI융합대학사업단(단장 박근창)은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3주간 미국 산호세 주립대학교에서 ‘썸머 Summer SW&AI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선대 제공>

### 광주 임곡중, 내몽골 오르도스 학술탐방 성료



광주 임곡중학교 3학년 학생 21명은 최근 3박4일 일정으로 시교육청의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 일환으로 중국 자치구 내몽골 오르도스로 학술탐방을 다녀왔다. <광주 임곡중학교 제공>

### 인사

- ◆전남도교육청
  - ◇분청 국장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 ◇분청 과장 ▲정책기획과장 서영욱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학생교육원장 김찬중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교육장
  - ◇여수교육장 백도현 ▲광양교육장 김여선 ▲목포교육장 정덕원 ▲고흥교육장 권형선 ▲무안교육장 김보훈 ▲장성교육장 정선영 ▲완도교육장 이철영 ▲진도교육장 김미 ▲신안교육장 박은아(이상 9월 1일자)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생생정보 스페셜 30 올림픽 하이라이트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30 생방송 오늘 아침	10 KBC 모닝와이드 3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08	25 아침마당	00 2024 파리 올림픽 중계식	30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파리 타임	15 모닝와이드 55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45 찾아가는 푸르기교실(재)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45 팔도밥상 스페셜(재)	00 KBS 드라마 스페셜 셀렉션 <아쉬웠가를 아시나요>	15 건강의 재구성 셀렉션(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5 올림픽 하이라이트 봉주르 파리	15 일일드라마 스캔들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2024 파리올림픽 하이라이트 5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00 SBS 12뉴스 25 민방 넷드위크 뉴스 50 SBS 파리 2024 하이라이트
01	00 방학특선 아주 사적인 여행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0 백성공주에게 죽음을 프리미어 25 뽀빠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40 생활의 달인 스페셜
02	00 KBS 뉴스 10 동행(재)			00 뉴스브리핑
03	05 자구를 살리는 에센스(재) 10 사랑의 가족(재)	00 여기는 파리 <골프/태권도/스포츠클라이밍 /근대5종/육상>	30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다이빙 /스포츠 클라이밍>	30 SBS 파리 2024 <태권도/클라이밍/탁구 /다이빙/골프>
04	00 사사건건			00 SBS 파리 2024 <태권도/탁구/다이빙/골프>
05	00 2024 파리 올림픽 <아티스틱 스위밍/골프 /스포츠 클라이밍/근대 5종>			30 MBC 뉴스데스크
06				
07				
08	30 수지맞은 우리 스페셜	00 여기는 파리 <골프/태권도/근대5종/탁구>	20 생방송 연금복권 720+ 25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다이빙/골프 /사이클 트랙>	00 SBS 8 뉴스 20 KBC 8 뉴스 40 SBS 파리 2024 <태권도/탁구/다이빙>
09	00 KBS 뉴스9 50 인사이드 <로드 투 파리 역대 박해정>			
10	40 2024 파리 올림픽 <다이빙/리듬체조>			
11	30 이슈픽 썸과 함께 스페셜			
12			30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역도/육상>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레인보우 버블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3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건축탐구 - 집(재)	19:20 고향민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PD로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하프와 친구들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루마니아 소문 탐사기 -드라클라 로드트립>
07:45 꼬마버스 타요	15:15 클래스 e	21:35 한국기행
08:00 당동댕 유치원	15:55 블록스	<물 만났네, 여름 4부 나만의 계곡 아지트>
08:20 최고대! 호기심 딱지	16:10 당동댕 유치원(재)	21:55 글로벌 가족 일기 - 안녕! 4남매
08:50 고고다노 해양구조대	16:30 페파 피그	22:45 다큐멘터리K
09:05 골짜기 처음 수학	16:4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인간이 되자!	16:50 도레미 프렌즈 쇼츠	24:00 EBS 비즈니스 리뷰
09:4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재)	16:55 꼬마버스 타요(재)	
10:30 한국기행(재)	17:10 최고대! 호기심 딱지(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8일(음 7월 5일 甲辰)

36년생 물고기가 용현이 변하여 용이 되는 형상이므로. 48년생 인식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라. 60년생 의심스러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72년생 망설이면서 저울질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84년생 형심이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안겨다 준다. 96년생 매끄럽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0, 53

37년생 우발적이라면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49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61년생 판이란 사정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3년생 약간의 신성 손다면 머지않아 호전되겠다. 85년생 대책 마련으로 부심하게 된다. 97년생 자율적인 것이 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02, 72

38년생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가 보인다. 50년생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유익하리라. 62년생 얼마나 치밀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 74년생 상대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자. 86년생 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98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것이 태반이라서 혼란스럽고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15, 70

39년생 속단은 연쇄적인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51년생 확신이 서더라도 아직 실행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알라. 63년생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은 특별하다. 75년생 바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느니라. 87년생 예견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다. 99년생 미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5, 75

40년생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면모를 띠고 있다. 52년생 큰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길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64년생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76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리하다. 88년생 평이함에 타피하여 변모를 시도해볼바하다. 00년생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1, 99

41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길사가 중중하리라. 53년생 희망의 빛이 점점 가까이 비추오는 형국이다. 65년생 성사는 되지만 성과는 미흡할 것이다. 77년생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89년생 확실히 유지하고 있어야 활용하게 된다. 01년생 지혜롭게 행한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되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11, 64

42년생 고민한다고 해서 즉시 해결될 일이 아니다. 54년생 착으로 인한 혼동의 피해가 상당할 수다. 66년생 대체적인 윤곽이 잡히면서 실체를 접하는 길목에 이른다. 78년생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90년생 확실한 안전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02년생 상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함이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31, 96

43년생 초심으로 밀려붙이면 틀림없이 성사된다. 55년생 매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활로가 개척되리라. 67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79년생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91년생 기대했던 바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게 된다. 03년생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허점이 드러날 수다. 행운의 숫자 : 08, 78

44년생 금방 왔던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된다. 56년생 단독으로 행하지 말고 길잡이와 함께하도록 하자. 68년생 주변의 여건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80년생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92년생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판도에 놓여 있다. 04년생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행운의 숫자 : 48, 85

45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57년생 그런대로 체면을 유지할 정도는 되겠다. 69년생 처리만 잘 한다면 길사와 연결되리라. 81년생 확실하지 않다면 삼가는 것이 면책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93년생 진행했던 일에 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 05년생 수효가 아니라 실속을 분명히 알자. 행운의 숫자 : 00, 65

46년생 좀처럼 오기 힘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인 바 꼭 잡도록 하자. 58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70년생 급할수록 우회하는 것이 복잡함을 피하는 길이다. 82년생 설익은 상태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자. 94년생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06년생 쉬 더운 구들이 쉬 식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5, 55

35년생 순리대로 풀이 나간다면 결과가 좋으리라. 47년생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무탈하다. 59년생 사실보다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느니라. 71년생 지극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83년생 사소한 것에서 단초의 발단이 생긴다. 95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기교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행운의 숫자 : 26, 63